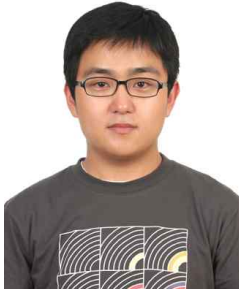


합격기
[제54회 행시 재경직 합격]

“스스로를 믿으면
합격한다.”



이 형 재

- 1983년 12월 생
- 충북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 2010년(제54회) 행시 재경직렬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0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이형재라고 합니다. 고시계와 행정고시 카페에 있는 합격수기를 읽으며 나도 언젠가는 꼭 합격해서 합격수기를 멋지게 쓰겠노라고 다짐을 하곤 하였는데 합격을 하고 8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시공부를 오래한 합격생의 부족한 수기라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02학번이구요 공부는 07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서 2차 네 번째 도전만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그 동안 공부하면서 후회했던 점도 참고하셔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부디 저처럼 오래걸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II. 시기별 공부 방법

1. 공부를 시작하며

제 꿈은 원래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로 소방서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공무원이 되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제대를 하자마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왜 내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학점이 낮아서 취업하기 힘들다거나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시에 도전하게 된다면 남들보다 힘들고 무의미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어야 노력도 쉽고 잘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막연히 생각한 채로 달려들어 중간중간 힘든 시기를 보냈었기에 행시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먼저 왜 내가 많은 직업중에서 5급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2. 2007년 첫 번째 시험과 2008년 두 번째 시험 (2007년 1월 - 2008년 7월)

05년에 제대를 하고 06년에 학교를 다니면서 동영상 강의로 1회독을 한 후에 2007년 1월에 신림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1회독이지 생소한 전공 공부를 하느라 고시공부는 방학 때 잠깐 잠깐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전공이 통계학이었던지라 한 과목은 쉽겠지 하면서 신림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7년 1월과 2월에는 PSAT 공부만 하였습니다. 2차를 본다고 해도 당장 합격할 수는 없을 것 같기에 내년에는 1차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점수를 끌어 올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에 모강과 스테디를 반복적으로 돌리며 1차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턱걸이로 1차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차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자 2차를 위해 3순환을 들을 것인지 기본순환을 들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때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3순환을 들었는데 매일 답안지는 채우지도 못하고

최고답안만 베껴서 다시 쓰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3순환을 들으며 공부의 방향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월등한 실력에 압도되기도 하였지만 나도 빨리 따라가겠노라 하며 다짐을 하며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3순환을 들은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기를 탄탄하게 닦아야 할 시기를 놓치게 되어 수험기간 내내 기본기가 없어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시는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먼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합격을 노리는 해에 덜 고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월까지 공부를 하고 2차 시험장에 5일 동안 열심히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당연히 불합격할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쉬고 7월 말에 행정법 1순환에 맞춰 신림동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신림동에 돌아와 시작한 것은 서브노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각 과목 공부방법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모든 과목을 서브노트로 공부하였습니다. 서브노트가 아니라 책만한 두께였기에 서브노트가 아니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름 손으로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저는 서브노트라 생각하며 1순환 행정법과 재정학, 2순환 경제학, 행정학, 통계학을 교차해서 들으며 강의 듣고 복습하고 서브노트를 만들며 이 시기를 보냈습니다.

08년 1월에는 오전에는 1차 스테디를

하고 오후에는 한 과목 정도 더 풀고 2차에 매진하였습니다. 작년에 1차 공부를 한 것과 그래도 기출은 꼼꼼히 풀어본 덕에 08년에도 1차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번의 1차 합격 모두 3개 내지 5개 차이로 합격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과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에도 3순환을 들으며 공부를 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친구들도 1차에 많이 합격하지 못하고 스테디도 하지 않았던 터라 주변에 말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 무척이나 고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집에 전화를 드릴 때나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가 유일한 낙이어서인지 무척이나 힘들었고 기본기를 다지지 못해 이 시기에도 기본서를 다시 읽으며 서브노트를 보충해야 했기에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2008년에도 2차에서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3. 2009년 세 번째 시험(2008년 9월-2009년 7월)

드디어 신림동을 탈출하였다는 생각에 여름을 놀아버리고 9월에 복학을 하고 나서야 다시 책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리셋이 되어 아무 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과제를 하면서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2차 불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야 다시 시험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를 한하지만 신림동에는 돌아가지 않고 싶지 않아서 학교 고시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고시동에는 모든 교과

서가 비치되어 언제든 필요할 때 볼 수 있었고 교수님 모의고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외로운 시험공부에 지쳐있었던 저에게는 정말 공부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때 여자친구도 생겼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공부하는 내내 저를 응원해주며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복습차원에서 새로운 기본서 한권과 서브노트를 읽고 1차는 기출문제만 복습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스테디도 열심히 하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며 2차를 치렀고 나름 만족스럽게 시험을 쳤다는 생각에 여름에는 폭 쉬면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9월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는 시험을 다시는 치지 않겠다는 생각에 법전도 나누어 주고 학교공부와 영어만 가볍게 공부하였습니다.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다시 고시공부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기에 취업박람회에도 기웃거리 보면서 초조하게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2차 합격자가 발표되는 날 저는 문자를 받지 못했고 또 다시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행정학을 제외하고 네 과목이 2차 커트라인을 넘었지만 행정학이 정말 과락만 면한 점수가 나와서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취업에 고생을 하고 있던 동생과 함께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기로 하고 학교 고시동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 2010년 네 번째 시험(2010년 1월-7월)

이 때에는 한참을 방황하다가 공부는 정확히 2010년 1월 4일 정말 눈이 많이 내리던 날에 시작했습니다. 2차 시험 이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고, 압축적인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이 해에는 PSAT는 거의 보지 않았고 2차에만 매진하였습니다.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 덕본인지 이 해에는 합격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수를 받았고 2차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고시동 사람들과 각 과목 3순환을 함께 들었고 과목별 스터디도 함께 했습니다. 오전에 동영상을 듣고 오후에는 2과목 정도 답안지를 쓰고 저녁에 복습을 하며 3순환을 공부하였습니다. 3순환을 마친 후에는 하루에 150점 내지 200점 정도의 답안지를 써가면서 그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풀어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행정학과 경제학을 잘하는 실원들과 함께 제가 자신있는 행정법이나 통계학을 도와주면서 6월 말까지 스터디를 지속하였고 그 결과 시험 때 까지 지치지 않고 잘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10년 재경 시험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을 마무리 하고 나서는 합격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2차를 끝냈습니다. 이후 취업준비를 하다가 10월에 2차 합격소식을 듣고 3차에도 큰 실수를 하지 않은 덕분에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에는 공부가 심하게 힘들지도 않았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덕에 결과적으

로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제가 속한 열람실에서 합격 했습니다.

III. 과목별 간단한 답

1. PSAT

저는 1차를 2007년부터 꾸준히 합격하였지만 PSAT형 인간이라고 불릴 정도의 고득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2007년에 2개월 넘게 PSAT에만 매달려서 기본기를 익히고 그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감각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었던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기출문제 풀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천하는 것은 기출은 시간을 재지 마시고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어느 과목이나 어느 유형에 강하고 취약한지를 알고 이에 대비해서 PSAT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상황판단영역의 퀴즈에는 약하고 법조문 문제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시험장에서 퀴즈 문제보다는 법조문 유형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료해석의 경우에도 통계문제에 보다 집중을 하고 계산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강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PSAT에 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은 쉽더라도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40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32

개 내지 35개 정도의 문제만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행정법

공부할 때는 가장 자신 있고, 재밌던 과목이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첫 날이라 그런지 항상 고생을 했던 과목이 바로 행정법이었습니다.

저는 공부 초반에는 여러 강사의 수업을 듣다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J변호사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단권화가 가장 잘 되어있었고 확실히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밀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K변호사님이나 K강사님의 자료를 구해 J변호사님의 책에 보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씩 이에 보충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례집을 자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은 비법대생이 공부하기에는 난해하거나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교수님들이 쓰신 기본서 외에도 다른 과목을 들으실 때 하루에 CASE 하나라도 꾸준히 사례집을 보시면서 익히시는 방법을 통해 조금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막판 암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꾸준히 하시고 5월 중순에는 꼭 판례의 주요문구와 최근의 판례를 정리해서 암기하시면 득점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법전은 꼭 곁에 두고 언제나

계속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3. 경제학

경제학은 양이 너무 많아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시를 마치고 우선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K강사님과 H강사님의 자료를 직접 손으로 정리하면서 저만의 문구나 형식으로 정리하였고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순환 모의고사나 고시동의 교수님 모의고사, 기본서 이외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시중의 보통 교과서만한 양이 되어 친구들이 이게 무슨 서브노트라며 걱정하기도 하였지만 직접 손으로 써서 정리하고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면서 저에게는 무척 익숙하고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나중에는 너무 서브노트에 매몰되어 서브노트 내용 이외의 문제들에는 당황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만드시더라도 서브노트에 매몰되는 것은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학 기본서로는 미시는 이준구, 이영환 저를 보았고 거시는 정운찬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시동에 들어가서는 그 때 그 때 필요한 책들을 읽으며 모자란 내용을 보충하곤 하였습니다. 거시의 경우에는 특히 초반에 여러 권을 보시기 보다는 기본서 한 권을 여러 번 정독하셔서 정확히 이해하신 후에 다른 교과서를 읽으셨으면 합니다. 기본서를 통해 학과의 흐름과 논리적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다른 교과서를 읽으시면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며 읽으신다면 거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행정학

많은 재정직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처럼 저도 정답이 없는 행정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서브노트로 공부를 했지만 거의 매년 서브노트를 새로 만들고 버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네 번째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행정학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답안에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시동에서 교수님 모의고사나 실제 행정학 시험을 치르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암기나 두루뭉술하게 내용을 쓰면 오히려 교수님께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이 적더라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만을 답안에 적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단권화된 강사님의 책보다는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정독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09년에 행정학에 간신히 과락을 면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해하고 있는 내용만 쉽게 풀어서 쓰고자 했던 2010년에는 행정학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재정학과 통계학

저는 재정학도 서브노트를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시중에 정리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를 기본으로 삼아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정학은 K강사님의 자료가 기본이었고 이준구 저와 Rosen저를 보았고 통계나 새

로운 재정제도의 경우에는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통계학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통계학 서브노트에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기호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제 손으로 써서 정리하였습니다. 통계학은 회귀분석 이후는 시중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셔야 하며 특히 회귀분석은 꼭 다른 교과서를 보신 후에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IV. 마치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꼭 스트레스를 푸는 자신만의 한 두가지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시 때 고생한 이후에는 고시동에서 공부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가끔 당구를 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여자친구가 가끔 학교근처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합격한 분들이나 스터디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조언은 듣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리며 공부한다면 공부 길어지기 쉽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공부 길어진 부분이 있기에 모쪼록 주변의 충고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이런 저런 내용을 적다보니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고시는

정말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지 않고 공부하면 언젠가는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말을 믿으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피곤'과 '나태'를 구분해서 나태해진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힘드실 때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과 고시동 멤버들을 비롯한 수험기간 동안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 특히 많은 힘이 되어준 여자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